

조르조 그라씨 건축형태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of Giorgio Grassi

곽기표* / Kwak, Ki-Pyo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fin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in Grassi's architecture which has architectural principles in architecture itself and in the general frame of the historical facts of architecture. His architectural theories can be explained for rationality, historicity, universality. The method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can be divided into urba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are the reconstruction of the urban structure by the readjustment of an urban axis which is based on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city, the open court which is a passage transformed from colonnade that is the historical vernacular type and the respect for the city-line which goes with historical cont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ter are the use transformed of nine square which gives consideration to centrality and typology at the same time and the hierarchic division of the principal space and the subordinate space for the functional typical purpose. This analysis shows that Grassi's architecture is on the base of historical continuity and urban reality and for him architectural work is mental work which conflict with the real world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city.

키워드 : 조르조 그라씨, 신헌리주의, 도시형태, 건축구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6년,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의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이 미국에서 발간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알도 로씨(Aldo Rossi)의 “도시의 건축(L'architettura della Città)”이 발간됨으로써, 두 대륙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현대건축의 출발을 알렸다. 알도 로씨를 중심으로 한 신헌리주의자들에게 이천년의 도시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도시는 단순히 기능적·합리적 관계의 표현만이 아닌 역사나 문화, 지리적·장소적 특질에 기인하는,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창조물’¹⁾로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도시에 그 어떤 형태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도시형태와 건축유형, 역사적 연속성, 불변하는 본질적 요소, 건축의 근본적 원리를 강조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신헌리주의의 중심 주제가 되며, 객관적이고 역사를 관통하는 건축질서의 상대적 자치성에 기초한 법칙성을 탐구하여 그

형태로서 표현하려는 합리주의적 경향의 건축사고를 계승한다.¹⁾

이러한 신헌리주의는 알도 로씨의 저서와 조르조 그라씨(Giorgio Grassi)의 “건축의 논리적 구축(La costruzione logica dell'architettura)”(1967)의 발간으로 촉발되었으며,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근거지로 이론과 작품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이탈리아 현대건축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대표자중 한 사람인 조르조 그라씨는 건축이론과 계획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건축물 속에 결합하고 있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더니즘 이후 세계건축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이탈리아 신헌리주의 건축의 주요 인물인 조르조 그라씨의 건축구성수법을 분석함으로써, 근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많은 역사적 유물을 운명적으로 떠 안고 있는 현대의 유럽 도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유럽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문제로 항상 강박관념에 싸여 있는 우리에게 건축의 본질과 역사,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회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건축학박사

1) Rossi, Aldo, L'architettura della Città, 2nd ed., CittàStudi, Milano, 1987, p.2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그라씨의 설계작업은 그의 이론의 실험적인 순간으로 고려되고, 그 순간은 이론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근거로 제공된다. 즉 설계작업은 이론의 재정립을 위해 중요한 순간이며 그라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의 유효성을 확립하려고 한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씨의 건축적 사고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저서를 포함한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해 건축이론의 주요 특성을 도출하며, 주요 작품 분석을 통해 건축구성수법을 알아본다. 그의 건축구성에서 입면의 문제는 구축 시스템과 의장 사이의 문제로서, '의장(decoration)'과 '장식(ornament)', 그리고 기술적 형태를 건축적 형태로 전환시키는 원칙인 'decoro'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³⁾

그라씨의 작품에서 역사적 건물의 보수작업(restauro)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유럽에 특유한 건물보수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범주의 과제이므로 본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계획작품은 실현된 것, 미실현된 것⁴⁾ 모두 포함해서 그의 건축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작품의 분석은 도시형태적 측면과 건축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검토한다.

2. 그라씨의 건축이론적 특성

2.1. 건축이론 형성 배경

그라씨는 1960년 이후 로저스(Ernesto N. Rogers)의 지휘하에서 전후 이탈리아에 건축적 논쟁을 광범위하게 일으키면서 건축계에서 주도적인 지적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까사벨라 콘티누이타(Casabella Continuità)'에 그레고티(Vittorio Gregotti), 알도 로씨, 까넬라(Guido Canella)와 함께 편집진으로 4년 동안 참여하였고, 그 곳에서 동료인 로씨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작품활동을 통해 그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해 나갔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의 문제는 보편적 정당성의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객관적 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프로그램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던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을 건축

분야에서의 찾는 것이었다.⁵⁾ 슈나이더(Karl Schneider), 클라인(Alexander Klein), 오드(J.J.P.Oud),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 등의 건축은 그라씨가 이론적 논의에서 계속 언급하고 그의 실제 계획에서 형태를 규정하는 선례들이다. 이들은 모두 고전적 경향에 속할 수 있으며, 그라씨가 고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구성법과 원리를 수용하고 그 위에서 형태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⁶⁾ 또한 건축의 아름다움이 합목적성과 견고함에서 나왔다고 믿어 합목적성이 곧 건축의 기본원칙이라 생각한 신고전주의자 쉰켈(Karl Friedrich Schinkel), 재료와 구조 및 건설방법에 있어서 이성적이며 장인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담하고 단순한 형태를 제시한 베를라헤(Hendrik Berlage), 그리고 슈마허(Fritz Schumacher)의 기념비적 건축의 영향도 그의 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배경이었다. 다음으로 그의 흥미는 로스(Adolf Loos), 테세노브(Heinrich Tessenow), 미스 판 데 로에(L. Mies van der Rohe) 등의 건축적 경험과 1920년대의 독일 합리주의 이론의 탐구로 향하였다. 그의 초기의 연구는 주거의 주제에 집중되었으며, 1972년에 그라씨의 감수성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건물보수 분야의 작업을 압비아테그라소(Abbiategrosso) 성 보수계획으로 시작하였고,⁷⁾ 여러 공공건물의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라씨에게 있어서 건축은 '구축', 즉 선택의 논리적 질서에 따른 '진행'이라는 건축 자체의 특성으로 정의되어지고,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의 구축 문제는 건축이론의 논리적 구축 과정으로 보여진다.⁸⁾ 이와 같은 건축적 배경에서 정립된 그라씨의 건축이론적 특성을 그의 저서와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합리성', '역사성', '보편성'이라는 세 범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2.2. 그라씨 건축이론의 주요 특성

(1) 합리성

건축에 대한 그라씨의 주요 개념은 1967년에 출판된 "건축의 논리적 구축"과 함께 나타났다. 이 책에서 그는 건축을 표현적 형태가 아니라 지식의 분석적 형태로 규정하였다. 건축은 기본적 요소(벽, 문, 창문, 기둥, 지붕)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요소들의 목적은 구축으로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 모두에서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축가는 건물에 그의 욕구를 부가해서는 안되고, 건물의 본질적 성질을 해명하고 그것의 참된 특질을 깔고 있는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무엇을 밝히기 위해 작업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런 접근방식은 그를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진영에 위치시켰다.⁹⁾ 그라씨의 합리

2) Monestiroli, Antonio, Teoria e Progetto - considerazioni sulla architettura di Giorgio Grassi, Controspazio, Ott. 1974, p.72

3) 의장(decoration)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는 가장(假裝)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 건축계획의 불가결한 중요성을 갖는다. 의장 없이 건축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장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를 건축적 요소를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의장화되지 않은 유일한 형태는 기술적 형태이다. Monestiroli, Antonio, La metopa e il triglifo, QA, No.13, 1992, p.120

4)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도시는 옛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중심지로 도시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축건물이 도시 내에 건립되는 경우는 예외적일 정도로 소수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획안 자체도 그 장소의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고려하게 되는 사고를 제공한다.

5) Emanuel, Muriel ed., Contemporary Architects, 2nd ed., St. James Press, Andover, 1994, p.374

6) Monestiroli, Antonio, Op. cit., 1974, p.73

7) Enciclopedia dell'architettura Garzanti, Garzanti Ed., 1996, p.366

8) Grassi, Giorgio, La costruzione logica dell'architettura, 4th., Marsilio Editori, Venezia, 1983, p.27

적 사고의 형성 배경에는 형태적 유형학과 역사주의적 고전주의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며 현실의 구체적인 특수화로서 설명되는 루카치(Georg Lukács)의 리얼리즘 개념이 놓여져 있으며¹⁰⁾, 그라씨의 의식적인 자기 제한을 통한 개념적 엄격주의와 미적 현실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그라씨는 건축의 필수적인 구성적 또는 조합적 법칙인 내재적 논리성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이론과 간명한 건축형태에서 그라씨는 건축을 착상에서부터 일시성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시간과 차이가 아니라 논리와 건축의 단일성이다. 명백한 일원론은 건축적 합리성에 대한 그의 개념을 관통한다. 그 개념은 영원하고 불변인 질서로서 생각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의 합리성과 필요성으로부터 생각되어진 것이다.¹¹⁾ 여기서 연역적 사고의 이론적 동기 자체인 합리주의 사고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 역사성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압비아테그랏소 성을 위한 계획에서 출발하여 그라씨의 작업은 항상 과거의 건축과 고대 도시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리하여 옛 것과 새 것의 관계는 그의 계획과 글을 통합하는 주제로 되었다.¹²⁾ 그는 건축역사를 통해 모든 건축적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원형(原型)들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¹³⁾ 건축의 역사적 사실에서 건축의 법칙을 찾으려는 이론적 선택을 하였다. 이 역사적 탐구는 계몽주의 시대의 뒤랑(J.N.L. Durand), 불레(E.L. Boullée), 르두(C.-N. Ledoux)에 의해 제시된 순수형태와 구성 유형을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의 구축에서 중요한 참조로서 역사를 받아들이는 가장 일반적인 경향 내에서도 그라씨의 사고를 구분하는 점은, 건축의 형태는 구성원리의 영속성과 건설의 기나긴 진행의 전승을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상의 건축에 대한 감탄은 그들 존재의 끊임없는 놀라움을 넘어서 오래되었지만 매번 새로운 구축물, 즉 옛 구축물의 확고한 존재에 항상 새로운 계획을 포함하는 구축물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건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¹⁴⁾ 이러한 것은 건물보수(restauro) 분야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그라씨의 건물보수에 대한 전문가적 관점은 리글(A. Riegl)에 의해 제시된 낭만적 전제에 기초하는데, 그에 의하면 현재와 과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모든 개입작업의 근본적 동기는 바로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옛 건물과 분리하고, 기술적 변화를 설명하며, 다른 시대와 현재의 시대정신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명백히 하는 것이 현대적 개입작업의 틀로서 항상 사용되는 전제들인 것이다.¹⁵⁾ 이는 그라씨의 보수계획에서 고고학적으로 원형을 복원하려 하지 않고 폐허와 개입작업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공적 폐허의 구성에 도달하게 하였다.¹⁶⁾

그는 건축을 실제로 지어진 건축, 미실현된 건축 그리고 건축원리, 건축이론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의 축적을 건축역사로 보고 있다. 유럽 도시에서의 역사성은 곧 도시형태, 건축유형, 장소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그라씨에게서 전통언어의 절제된 사용과 도시형태적, 유형학적 원형을 바탕으로 접근하려는 건축적 사고로 나타나고 있고, 그의 건축의 묘사는 항상 역사적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3) 보편성

보편성은 합리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이지만 그라씨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슈이다.

그라씨는 오늘날의 건축의 중요한 문제를 공통된 언어의 상실과 연관된, 건축이 내포하는 의미와 건축형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것은 건축이 항상 가장 집단적인 것¹⁷⁾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건축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오늘날의 건축은 단지 현재 건축의 상태로서 일관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⁸⁾ 그라씨에게는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건축적 개입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건축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그가 자신의 작품과 글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시켜 주었듯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건축은 하나이며, 항상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살아가고 건설하는 것과 과거에 그랬던 것의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 대조점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라씨에게는 새로운 건축이나 옛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⁹⁾ 그것은 역사상 단일한 경험의 지속적인 흔적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고, 시기상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작품들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모든 계획안들은 하나의 계획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건축이 매번 당대의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응답으로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거나, 건축이 바로 그 시대 독점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이것은 건축에 대한 본질적 물음

9)Emanuel, Muriel ed., Op. cit., p.374

10)Sola-Morales, Ignacio, Critical Discipline, Oppositions, n.23, 1981, p.143

11)Sola' Morales, Ignaci de, L'intervento architettonico : i limiti della imitazione, Giorgio Grassi. Op. cit., 1988, p.10

12)Grassi, Giorgio, Op. cit., 1988, p.7

13)Magnago Lampugnani, Vittorio, 20세기 건축가와 사조, 김문덕·김정준 공역, 재관, 국제, 서울, 1990, p.132

14)Monestiroli, Antonio, Op. cit., 1974, p.73

15)Sola' Morales, Ignaci de, Op. cit., p.9

16)이것은 사군토(Sagunto)의 로마극장 복원계획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1985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완공될 때까지 10년간 전통적 복원전문가들과의 고건축 보수 방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17)이러한 관점은 건축을 유형으로서 파악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신합리주의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형성한다.

18)Pierini, Simona ed., Giorgio Grassi. Progetti per la citta' antica, Motta Architettura, Milano, 1995, p.21

19)Sola' Morales, Ignaci de, Op. cit., p.8

으로서 이유와 방식에 대한 성찰로 나타난다. 그는 '왜?' (perché)라는 물음을 우리의 작업이 어떠한 임의적인 행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²¹⁾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건축가로서 과거의 건축을 관찰할 때 '어떻게(come)'라는 관점에서 그 건축의 기술적 비밀을 관찰해야 하며 이 비밀은 형태 그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결정하는 조정, 즉 부분과 요소들의 배열을 관장하는 질서에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형태는 단지 그러한 질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흥미²²⁾ 있을 따름이다.

또한 그라씨 건축에서의 보편적 특성은 건축적 유형의 탐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건물이 지어질 장소적 특성이 도시적 관점에서 미약하고 맥락적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유형의 탐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진행하며, 주거,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의 특정한 유형 탐구에 치중하고 있다.

3. 그라씨의 건축구성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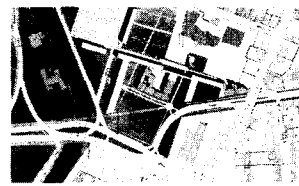
3.1. 도시형태적 특성

(1) 도시구조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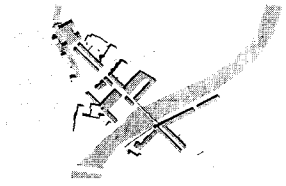
유럽의 도시들은 로마시대의 사각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병영도시(Castrum)를 그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도시들은 중세시대를 거쳐 방어를 위한 성곽도시가 되고, 도시구조가 성벽 내부에서 고정된다. 그러나 근세 이후 유럽의 도시들은 대포를 비롯한 전쟁무기의 발달로 인한 성벽의 무용화(無用化), 인구집중과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에 따라 옛 도시 중심부와 확장된 도시 사이의 도시구조적 상위가 나타나고, 18, 19세기 이후에는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계획안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도시구조의 시대적 불일치는 도시문제의 근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그라씨는 변형된 도시 형태를 과감하게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현재의 계획안을 역사적 도시의 건축적 구조와 관련짓는 것으로 장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라씨는 계획의 대상을 그 계획안이 개입되는 장소, 그 물리적 장소라고 생각하여 바로 그 물리적 장소의 관점에서 계획을 시작한다. 실제적으로 계획은 항상 처음부터 존재하던 장소의 변형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이다. 그 둘 중 이미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미 그 자신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장소이고, 장소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이 제시되면 장소 또한 새로운 형태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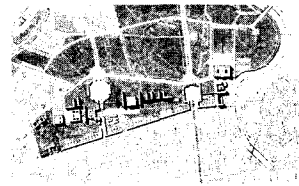
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계획하게 되면 또한 장소를 계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최종의 형태로서 보여주며, 그 형태는 우리가 변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최종의 형태는 수많은 시도와 변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형태는 단지 최종의 형태이다. 그것이 바로 그라씨가 장소의 구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라씨는 계획이라는 말 대신 재구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계획은 그 장소의 역사에 참가하게 되고, 그 장소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라씨가 생각하는 계획의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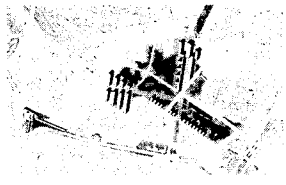
a) Lützowplatz, Berlin, 1981



b) Marburg, 1986



c) Grotewohlstrasse, Berlin, 1990



d) Garibaldi-Repubblica, Milano, 1991

<그림 1> 도시구조의 조정

베를린의 뤼초브플라츠(Lützowplatz) 계획안은 남북으로 긴 하나의 건물로 형성되고 가로지르는 건물이 빗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형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존의 건물들을 단일의 계획안에 포함시키면서 의미 있는 건축적 요소들을 재편성하려는 의지에서 유래한다.²⁴⁾

마부르크(Marburg) 계획안에서 그라씨는 역사적 중심부를 관통하는 통로는 '건축적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도시로의 접근과 오래된 중심 핵으로의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다. 말하자면 이 계획은 조화롭고 정돈된 '건축적 산책로(promenade)'를 넘어서 '고대 도시로의 도입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베를린의 그로테블슈트라세(Grotewohlstrasse) 계획안은 이 도시의 역사적인 두 개의 도시, 즉 미실현된 것으로서 다시 제안되는 바로크적 주거도시 계획안과 국가 통일의 결과인 새로운 정치적·행정적 도시 계획안의 구별되는 중첩으로 이루어진

20) Monestiroli, Antonio, Op. cit., 1974, p.72

21) Crespi, Giovanna ed., Giorgio Grassi. I progetti, le opere e gli scritti, Electa, Milano, 1996, p.401

22) Grassi, Giorgio, Op. cit., 1988, p.23

23) Grassi, Giorgio, La Ricostruzione del luogo, Lotus, n.74, 1992, p.129

24) Crespi, Giovanna ed., Op. cit., p.122

25) Crespi, Giovanna ed., Ibid., p.204

다. 즉 계획안은 낮고 연속적인 건축적 특성을 나타내는 옛 주 거도시 계획과 새로운 정치적·행정적 구조의 높고 분절된 도시계획의 중첩이다.²⁶⁾

밀라노 가리발디역 주변 계획안은 도시적 맥락에서 연속적이고 깊은 균열을, 변형을 위한 기회로서만이 아니라 도시형태와 관련하여 그 자신에 이미 그 해답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²⁷⁾로서 보고, 그 축의 회복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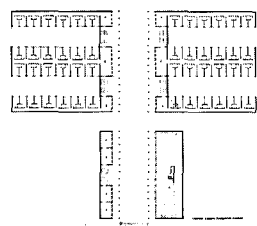
이상의 계획안들은 현재의 도시구조를 역사적 도시구조²⁸⁾와 관련시켜 재구축하는 것으로 주로 도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하학적 질서, 구축의 형태, 도로의 형상 등을 축의 재조정에 의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의 역사적인 단편들을 하나의 도시형태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역사적 연속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

열린 중정의 개념은 그라씨의 활동 초기에 이미 끼에티 학생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1976년에 그라씨는 모네스티롤리(Antonio Monestiroli)와 공동으로 끼에티의 학생기숙사를 계획하여 그 계획안의 일부가 착공되었다. 그라씨는 단순한 두 개의 열과 대칭인 두 개의 빗 모양의 블록 배치를 결정했고 이 2-3층 구성의 복합건물은 부분적으로 자연 경관을 능가하는 형상으로 수평기단 위에 놓여지며 인공성이 강조되어 있고,²⁹⁾ 학생용 숙소, 학생식당, 그 밖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의 부지 내에서 배분된 건물들은 서로 평행하여 대치되고,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전된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구성의 핵심은 일종의 직선적 아고라 양식으로 된 통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통로의 양 측면은 죽 늘어선 장방형의 가늘고 높은 기둥들로 이루어지고 내측의 실(室)로 연결되는 커다란 열주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바인브레너(Friedrich Weinbrenner)



<그림 2> 학생기숙사, Chieti, 1976

가 칼스루에(Karlsruhe)에 계획한 미실현 작품인 '랑에 슈트라세(Lange-strasse)'를 연상시켜 준다.³⁰⁾ 이러한 축의 성격을 지닌 통로 유형은 이미 그리스의 아고라, 로마의 포룸에서 그 원

26)Crespi, Giovanna ed., Ibid., p.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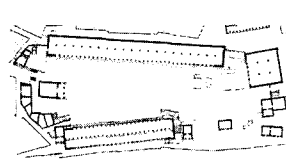
27)Crespi, Giovanna ed., Ibid., p.216

28)여기서의 도시구조는 실현되어 있는 것, 실현되었다가 사라져버린 것뿐만 아니라 계획안으로 끝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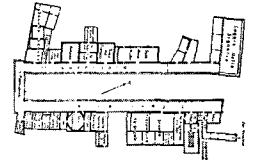
29)Magnago Lampugnani, Vittorio, 현대건축사조개관, 김정호·이강호 공역, 기문당, 서울, 1992, p.301

30)Magnago Lampugnani, Vittorio, Op. cit., 1990,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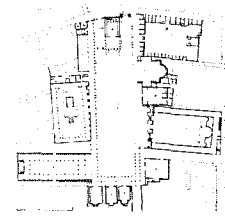
형적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피렌체의 우피치 갤러리(Galleria degli Uffizi),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버지니아 대학교, 뵘와이에(Bernard Poyet)의 파리 병원계획안을 비롯한 신고전주의적 계획안들, 테세노브의 클로체(Klotzsche) 국립학교 등에서 기념비적 상징성이 부가되는 공공건물로서 구현되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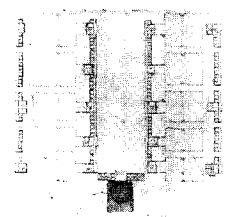
a) 아고라, Assos



b) Galleria degli Uffizi, Firenze



c) Forum, Pompei



d) University of Virginia



e) F. Weinbrenner, Lange-strasse



f) Lombardia 지방 농가

<그림 3>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의 역사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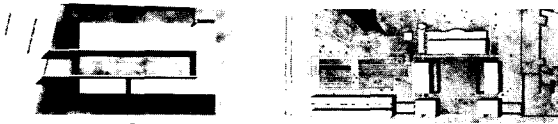
이렇게 의장적으로 통일적인 도로 막과 전체 높이의 열주랑은 적절한 해석이고 건축적으로 이 새로운 중요한 도시건축물에 부여된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도로 자체를 최고의 공공적 장소로서 이해하는 것이다.³¹⁾ 또한 열주랑 가로 유형은 북부 이탈리아의 세속적인 지방건물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수가 통로적 중정을 가운데 둔 갤러리와 열주랑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계획안은 역사상 의미 있는 농촌 구조물의 구축적 전통과 용해되고, 도시의 건물 전통과 전원의 전통 사이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준다.³²⁾

이러한 방식의 계획안들에서 고전적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수법인 건물형태가 대칭을 이루는 방법이, 현대적 기능과 관련되어 건물형태 자체는 불규칙한 비정형적 상태를 이루나 평면적 구성에서 중앙에 열린 중정이나 중요한 실을 배치하는 수법으로 변형되어 구사되고 있다. 이는 보이드(void)의 대칭과 솔리드(solid)의 비대칭의 차이로 표현되는데, 때로는 열주랑이 사라진 비어 있는 외부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비대칭적 건물

31)Crespi, Giovanna ed., Op. cit., p.82

32)Crespi, Giovanna ed., Ibid., p.83

균을 배치하고 통로의 초점이 되는 정면에 주요 기능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매스를 배치함으로써 'U'형을 구성하여 고전적 중심성과 역동적 교호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아고라와 중정이 결합된 형식, 즉 한 면 또는 두 면이 열린 통로로서의 중정 형식을 띠고 있다.



a) 실험실 계획안, Paullo, 1968 b) Prinz Albrecht Palais, Berlin, 1984

<그림 4>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

빠울로(Paullo)의 실험실 계획안에서 텅빈 중정은 늘어선 기둥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며, 벽면 개구부의 규칙적인 연결과 함께 단순한 외관은 조용한 배경을 지배하고 있다. 유럽 건축에서 기둥 사이에 개구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요소에 영구성과 타당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원형(原型)의 형태로 끌어낸다. 이것은 열주랑이 사라지고 연속적 개구부만으로 구성되는 중정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된다. 이런 원형의 요소로 되돌아감에 있어서 그라씨는 모더니즘의 하얀 벽체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유형에 현재성이 배어들게 하였다. 동시에 극도로 약화시켜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형태 요소는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이러한 구성방식의 계획안들에서 건물 전면부의 내부적 오픈스페이스인 좁고 깊은 열린 중정은, 진행성과 연속성을 가진 주진입구를 이루면서 내향적 초점을 가지는 공간을 형성하여 전체적 건축적 형상을 구성하는 투시도법적 축을 나타낸다.

(3) 도시선

유럽 도시, 특히 '역사적 중심부'라고 불리는 도심지에서의 건축계획은 주로 '개입(intervention)'이라고 불리는데, 이 개입은 거의 배치작업에 치중되며, 도시구조, 도시형태학, 도로선, 가로입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건물의 배치는 건축의 주변상황과의 관계맺음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도시의 실제적인 물리적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로닝엔(Groningen)의 도서관 계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로서, 고대 도시의 가장 전형적인 블록에 거대 규모의 공공건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 블록은 현저히 유사한 건축물들(토지점유형식, 필지 형태, 유형, 정면의 폭, 높이 등)과 건축적 해결의 유사성('3열 창' 형식의 주거, 재료, 도로에서의 입구, 건물 상부 장식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³⁴⁾ 문제는 신축될 도서관의 입구로 예정된 주도로상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즉 그곳에서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정면이 좁고 규칙적인 정면들로 이루어진 동질의 건축적 구성에 끼어 들어야 하는 것이다. 계획작업 중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신축건물이 그 주변의 건물들과 형성하게 될 공간적 관계이며, 이것은 특히 높이와 토지 점유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관계는 블록의 네 측면을 따라 변한다. 계획건물과 인접한 주변과의 관계는 각각의 측면에 대한 '분석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였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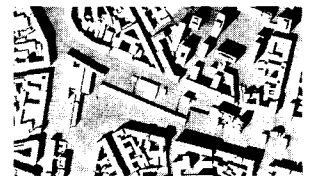
a) Piazza Matteotti, Siena, 1988



b) 도서관 계획안, Groningen, 1989



c) Gavà 시청사, Barcelona, 1989



d) 시립도서관, Milano, 1991

<그림 5> 도시선

밀라노의 시립도서관 계획안은 스페인 점령시대에 구축되었다가 현재에는 그 흔적이 도로선을 따라 남아 있는 성벽의 윤곽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현재 도로로 인해 가운데가 관통된 성벽 모서리 부분에 원래의 방어적 성격을 형태로서 돌려주려 하며 역사적 도시선의 회복을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획안들은 도시선을 형성하는 주요한 건축배치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하학적 구성이나 건축프로그램상의 이유로 대지경계선을 따라 건물전체를 배치하기 힘들 경우, 건물의 일부분(주로 서비스 부분이나 독립된 기능을 가진 실을 위치시킴)을 대지 경계선에 일치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의 계획안들은 현재의 도시상황에 의해 단절된 역사적 도시의 맥락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3.2. 건축구성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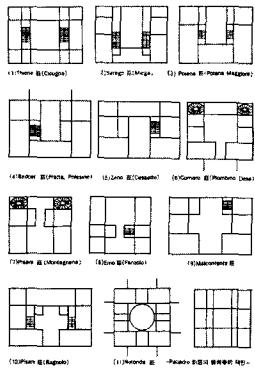
(1) 구분할구성(nine-square)

그라씨 건축의 평면의 구성수법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평면구성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다. 그의 건축작품의 거의 모든 평면은 'I'자, 'U'자, '口'자, 'H'자, '田'자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구분할구성(nine-square)의 변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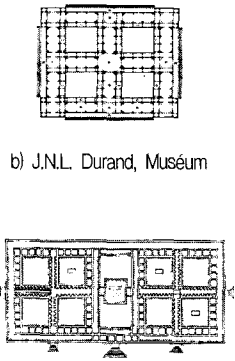
33)Klotz, Heinrich, Moderne und Postmoderne, 현대건축론, 양동양 편역, 기문당, 서울, 1991, p.233

34)Pierini, Simona ed., Op. cit.,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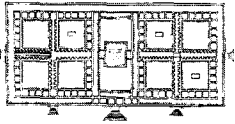
35)Pierini, Simona ed., Ibid., p.46



a) Wittercover, Palladio의 villa 분석



b) J.N.L. Durand, Musé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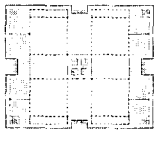


c) Ospedale Maggiore, Milano

<그림 6> 구분할구성의 역사적 사례

고전주의는 수직적 삼부구성(기단, 본체, 지붕)과 수평적 삼부구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평적 삼부구성이 네 면에 적용되었을 때 구분할구성이 나타난다. 구분할구성은 그 중심부가 때로는 내부의 중심공간으로 때로는 외부공간으로 나타나면서 중심적인 공간구성을 형성하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를 보여주며, 르네상스 시기의 팔라조나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빌라들에서 그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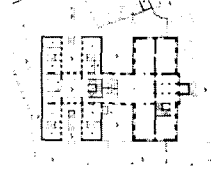
그라씨는 구분할구성 원리를 기본으로 주변 맥락이나 형상, 또는 용도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즉 건물형태가 대칭성을 이루는 삼부구성 이라기보다는 건물형태 자체는 불규칙한 비정형적 상태를 이루나 평면적 구성에서 중앙에 열린 중정이나 중요한 실을 배치하여 삼부구성을 이루고 있다.



a) 밀라노공대 도서관, Milano, 1930



b) 학교계획안, Santiago di Compostela, 1992



c) Kulturgeschichtliches Museum, Osnabrück,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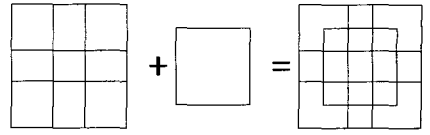


d) ABB-Roland Ernst 지역 사무소, Berlin, 1993

<그림 7> 구분할 구성

계획에 따라서는 평면구성이 'H'자 형식을 취하면서 고전적 중심성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H'형상의 건물 배치는 건물의 3면으로 둘러싸인 2개의 열려진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각 공간의 상대적인 개별성과 전체적인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중정 형식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田'자형 평면을 사용하는데 이는 밀라노의 병원 (Ospedale Maggiore)이나



<그림 8> '田'형 평면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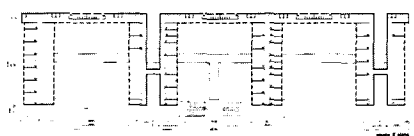
뒤랑 등 신고전주의 건축가들의 평면에서 그 전례를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기본적 구분할구성에 또 하나의 사각형이 중합된 형식이다. 구분할구성은 중심성, 대칭성으로 인해 고전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라씨의 경우는 주변 맥락이나 대지 형상, 용도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고, 유럽의 도시구조에 적절히 융합된다.

(2) 주·종공간(主·從空間)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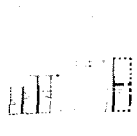
그라씨 건축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주요 공간과 부속되는 공간의 분리이다. 주공간과 종공간의 구별은 평면을 구성하는 공간 단위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실(室)의 용도에 따른 공간의 분절, 코어 공간의 분절 등으로 나타나며, 그 형태적 구분으로 인하여 공간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분리를 통해 건축구성에서의 명료함을 가져온다.

끼에티 학생기숙사에서 주거공간을 수용하는 목적의 평행한 건물체들을 연결하는 부분은, 계단·대기장소 같은 공유시설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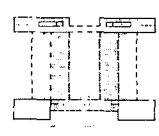
뜨리에스테(Trieste) 지방청사 계획안에서 빗 모양 유형의 채택은 지방 신청사 같이 넓고 일반적인 건물이며 도시 맥락 내에서 배치와 관련된 단서가 풍부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다. 업무용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배치체계인 것이다. 이 계획안에서 순수한 사무공간을 수용하는 목적의 평행한 매스들을 연결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계단, 위생시설, 대기장소 같은 공유시설을 수용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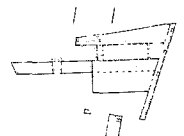
a) 지방청사, Trieste, 1974



b) 공공도서관, Groningen, 1989



c) 밀라노공대 도서관, Milano, 1990



d) 시립도서관, Milano, 1991

<그림 9> 주·종공간의 분리

그로닝엔 도서관에서는 서로 다른 용도에 따른 건물의 분절로

36)Crespi, Giovanna ed., Op. cit., p.70






서 처리하였다. 즉 실제적이고 고유한 도서관(열람실, 서고 등) 건물 매스를 사무실과 일반 서비스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두 매스를 모든 수직적, 수평적 연결을 담당하는 아주 가는 제3의 매스로 연결한다.³⁷⁾

이러한 구성방법에서 주로 코어 역할을 하는 공간은 가늘고 긴 막대 형태로 독립되어 구성되어 있고, 기능적인 이유 외에 이 유형학적 선택은 도시에서의 역사적 건축물들의 형태적 문제와 관련하여 채택되어졌다.

3.3. 소결

이상과 같이 그라씨 건축의 구성수법을 도시형태적 측면과 건축구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그 구성수법들이 고전주의와 합리주의, 리얼리즘적 사고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계획안들은 합리성, 역사성, 보편성으로 대별되는 이론적 특성과 상호 교차되어 나타나 그의 이론과 실제 계획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표 1> 그라씨 건축의 구성수법

	특 징	내 용
도시형태적 특성		도시구조의 조정 : 도시의 역사적 연속성에 기반을 둔 축의 재조정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 : 열주랑이 있는 회랑의 변형인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
		도시선 : 역사적 도시맥락에 순응하는 도시선의 존중
건축구성적 특성		구분할구성 : 중심성과 맥락성을 동시에 염두를 둔 구분할구성의 변형적 사용
		주·중공간의 분리 : 기능적·유형적 목적을 위한 주공간과 중공간의 위계적 분리

4. 결론

그라씨적 신험리주의는 후기근대주의의 독자적 변형으로 특징 지어지며 이론적으로 합리성, 역사성, 보편성으로 나타난다. 건축 형태적으로는 극도로 단순하고 침묵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축 자체에서 그리고 건축의 역사적 사실의 전체적 틀 내에서 건축의 법칙을 찾으려는 그라씨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기본적 특성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태적 특성으로는 도시구조의 조정,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 역사적 도시맥락에 순응하는 도시선의 적용으로 나타난다. 도시구조의 조정은 현재의 도시구조를 역사적 도시구조와 관련시켜 축의 재조정에 의하여 재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로로서의 열린 중정은 비어있는 외부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

군을 배치함으로써 고전적 중심성과 역동적 교호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아고라와 중정이 결합된 형식, 즉 열린 중정의 형식을 띠고 있다. 도시선은 유럽도시의 가로를 형성하는 질서를 주요한 건축배치적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기하학적 구성이나 건축 프로그램상의 이유로 대지경계선을 따라 건물전체를 배치하기 힘들 경우, 건물의 일부분을 대지 경계선에 일치시킴으로써 도시의 실제적인 물리적 구조와 연속성을 유지한다.

둘째 건축구성적 특성으로는 구분할구성의 변형적 사용, 주공간과 중공간의 위계적 분리로 나타난다. 구분할구성은 중심성, 대칭성이 강하여 고전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라씨의 경우는 주변 맥락이나 대지의 형상, 또는 용도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고, 유럽의 도시구조에 적절히 융합된다. 주·중공간의 분리는 기능적인 동기 외에도 도시에서의 건물 유형과 관련해 채택되어졌다.

그라씨에게 있어서 건축작업은 도시를 재구축하기 위해 실제의 세계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정신적 작업이다. 모스키니(Francesco Moschini)는 “장인(匠人)은 밝은 태양 아래에서 작업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드러내지 않는다”³⁸⁾고 하였지만,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역사와 장소, 건축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일 것이다. 그의 건축은 역사적 연속성과 도시적 실재에 기반하여 구축되고 있으면서, 유럽의 현 도시적 상황에 합치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Crespi, Giovanna ed., Giorgio Grassi. I progetti, le opere e gli scritti, Electa, Milano, 1996
2. Emanuel, Muriel ed., Contemporary Architects, 2nd ed., St. James Press, Andover, 1994
3. Enciclopedia dell'architettura Garzanti, Garzanti Ed., 1996
4. Grassi, Giorgio, La costruzione logica dell'architettura, 4th., Marsilio Editori, Venezia
5. _____, Architettura, Lingua morta, Electa, Milano, 1988
6. Moschini, Francesco, Giorgio Grassi. Progetti 1960-1980, Centro Di, Firenze, 1984
7. Pierini, Simona ed., Giorgio Grassi. Progetti per la città' antica, Motta Architettura, Milano, 1995
8. Rossi, Aldo, L'architettura della Città, 2nd ed., CittàStudi, Milano, 1987
9. Klotz, Heinrich, Moderne und Postmoderne, 현대건축론, 양동양 편역, 기문당, 서울, 1991
10. Magnago Lampugnani, Vittorio, 20세기 건축가와 사조, 김문덕·김경준 공역, 재판, 국제, 서울, 1990
11. _____, 현대건축사조개관, 김경호·이강호 공역, 기문당, 서울, 1992
12. Grassi, Giorgio, La Ricostruzione del luogo, Lotus, n.74, 1992
13. Monestiroli, Antonio, Teoria e Progetto - considerazioni sulla architettura di Giorgio Grassi, Controspazio, Ott. 1974
14. _____, Teoria e Progetto - considerazioni sull'architettura di Giorgio Grassi, Controspazio, Ott. 1974
15. Sola-Morales, Ignacio, Critical Discipline, Oppositions, n.23, 1981

<접수 : 2002. 4. 30>

37)Pierini, Simona ed., Op. cit., p.45

38)Moschini, Francesco, Giorgio Grassi. Progetti 1960-1980, Centro Di, Firenze, 1984, p.8